

'정상탈환 축구명가 재건' 야심

「새 천년을 여는 2000년, 프로리그 우승으로 축구명가를 재건한다.」
 조운욱, 이회택, 김호, 최순호, 이동국 등 한국 최고의 스타를 배출한 전통의 명문클럽 포항 스틸러스가 뉴 밀레니엄 시대를 맞아 화려한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88, 92년 한국프로축구 우승을 차지한 이후 긴 침묵을 보이고 있는 포항은 불끈 솟아오르는 새 천년의 해를 베풀기 위해 다시 영일만에서 꽃피운다.

강철의 전사, 스틸러스 군단이 2000년 우승을 향한 힘찬 뒤편질로 새 천년 첫 아침을 열었다

<편집자주>



구단운영 중점추진계획

지난 90년 박태준포철회장의 선구적인 안목에 힘입어 국내최초로 축구전용구장을 건립함으로써 포항 스틸러스는 한국축구발전의 재기를 선도했다.

국가대표 40여명을 배출한 스타산실인 포항구단은 멀게는 조운욱, 이회택, 김호, 박성화로부터 가까이는 최순호, 이동국에

완비한 인조잔디구장으로 변모, 전천후 훈련시설로 거듭나며 천연잔디구장 2면과 함께 2002년 월드컵 연습구장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차사장은 국내 프로구단에서 처음으로 축구유망주 해외유학 프로그램을 구성,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 올 3월초 15명(전남 구단 5명포함)을 1년간 브라질 지코르람에 유학보내 한국 유소년축구 발전모델을 선구적으로 구축했다.

게 하는 구단으로서 이미지를 심었다.

또 지역의 축구 꿈나무 육성과 동호인들의 기량 향상을 위해 스틸러스기초 등교축구대회, 조기축구대회를 매년 개최해 포항의 축구열기를 뒷받침했다.

또 전용구장 철도은행, 셔틀버스 운행 등 교통편의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관중들을 위해 연초부터 다양한 이벤트를 개발할 계획이다.

선수육성 및 복지증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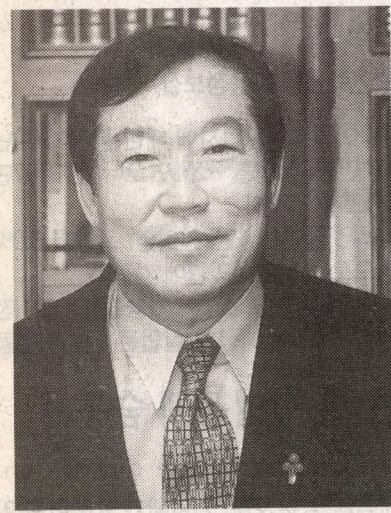
올해에는 철저한 메리트시스템을 실시한다. 선수뿐 아니라 지도자를 포함해 종합적인 인센티브제를 도입, 구단에 기여한 실적에 따라 보상에 차별화를 부여할 방침이다.

지난해 실시해 좋은 반응을 얻은 연고지명 고교 친선축구대회를 매년 등·하계에 개최, 자매결연 학교 선수들에게 자긍심을 부여하고 친선 경기를 통해 우수선수 조기 발굴의 기회로 활용한다.

이와 병행해 올해부터는 고졸 출신들이 주축을 이룬 프로 2군에서 매년 5명을 선발, 일본 J리그 프로 2군과 교환연수에 나서 2군의 경기력과 사기진작을 꾀할 계획이다.

이로써 2002 월드컵 공동개최국으로서 우호증진과 축구 미래를 짊어질 유망주들이 경험과 국제 감각을 익혀 세계무대에 빨리 적응해 나가도록 돕는다는 구상이다.

선수들의 신속한 부상치료와 재활방지를 위해 세계 전문병원과 제휴,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현재 고정운, 백승철, 이동욱 등이 독일 쾰른 판클리닉에서 올 3월 개막되는 정규리그 출장에 대비해 착실히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최만수기자】



차동해 사장 새해구상 "메리트시스템 도입"

포항 스틸러스 차동해사장은 올해 목표를 첫째 팀 우승과 우수선수 육성, 둘째 관중동원, 셋째 구단 자립도 향상을 내걸었다.

이와 관련 차사장은 "목표는 당연히 정규리그 우승이다. 팀 전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방안으로 철저한 메리트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수선수 육성을 위해 올 3월초 브라질에 10명의 유학생을 보내 선진 축구를 빨리 익힐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차사장은 "관중과 스타없는 프로구단은 존재의미가 없다고 강조하고 구단과 선수 모두가 최상의 팬서비스로 관중들을 감동시키는 축구를 한다는 각오로 매 경기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구단의 자생력을 키워 향후 자체수입으로 운영 가능한 포항구단으로 키워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르기까지 수많은 스타를 길러내며 국민들의 사랑을 받은 한국최고의 명문구단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런 비옥한 토양을 바탕으로 지난해 3월 대표이사에 취임한 차동해사장은 이후 잇따른 발전적 구상을 마련, 제2 도약의 전기를 마련했다.

차사장은 유상부포철회장(프로축구연맹 회장), 이구택포철회장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세계수준에 손색없는 선수단 전용숙소 계획안을 확정, 2000년 송라구장에서 첫 삽을 뜨는 역사적인 플랜을 성사시켰다. 90억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건립되는 선수단 숙소에는 각종 편의시설과 최첨단 보조시설이 들어서 향후 완벽한 클럽하우스의 형태로 운영된다. 기존의 클레이구장은 아간 조명시설을

이 유학 프로그램이 발표되자 각 프로구단에 유소년축구 붐이 불 정도로 엄청난 파급효과를 보였다.

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축구 유망주 유학이 붐을 이루면서 2002년 월드컵 개최를 앞둔 올해 한국축구의 비약적인 성장을 가능케하는 촉매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구단표방

포항 스틸러스는 지난 95년 (주)포항프로 축구로 법인이 출범하면서 시민의 구단을 표방해왔다.

지난 한해에도 포철 및 주주들과 선수단 사이에 계속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어 가족적인 분위기를 도모하는 한편 시민들을 위한 각종 행사에도 적극 참여, 시민과 함

90억투입 송라구장 각종 편의시설 완성 15명 브라질에 유학 축구발전 모델 제시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구단 이미지 심어

최영만 단장 지원구상



최영만
포항스틸러스 단장

「올해도 변함없이 선수들을 따뜻히 보살피는 「어머니 역할」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포항 스틸러스 최영만단장은 올해도 선수단 숙소와 애수로 둘러싼 선수들의 생활과 애사자를 파아, 선수들이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경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단장은 당초 1, 2군 선수들이 분리돼 생활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선수 경기전념토록 뒷바라지 최선 전용경기장 개보수 관전편의 제공

2군도 1군 숙소에서 함께 생활토록 배려, 선수들간의 괴리감과 소외감 해소에 주력할 생각.

또 선수들의 교양 함양을 위해 월 1회이상 외부강사를 초청, 예절교육 등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며 지난해 예정장기에 이어 올해 첫번째 강의로 오는 8일 서울 을지병원 이경태 박사를 초청해 「부상방지과 컨디션 조절, 방안에 대한 강의」를 마련했다.

관중들에게 최상의 경기관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용구장 개보수작업에 착수, 셔포터스들의 응원편의를 위한 셔포터스석 의자를 접이식으로 교체하고 본부석과 기자회견을 우선시에도 의자가 없도록 대비할 계획이다.

최단장은 포항구단이 시민들과 포철을 잇는 가교라고 생각한다며 「경기는 화끈하게 이벤트는 화려하게」를 모토로 올해는 신명나는 축구장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성화 감독 우승전략



박성화
포항스틸러스 감독

「조직력을 앞세워 우승에 도전한다.」

포항 스틸러스 박성화감독은 올해 동계훈련과 일본 전지훈련을 통해 팀 조직력을 정비, 정상급 도전에 나설 각오다.

포항은 드래프트를 통해 알짜 신인들이 입단했고 노태경, 장현호가 군 제대후 팀에 복귀한다며 김기남, 조정현이 트레이드로 보강, 한결 탄탄한 전력으로 올 시즌을 맞게 됐다. 하지만 고정운, 백승철이 부상

탄탄한 조직력 앞세워 정상 노크 수비라인 최고 안정된 경기 기대

으로 독일에서 재활훈련중이고 올림픽대표 이동국이 각종 국제대회 차출이 예상되면서 공격진의 공백이 아킬레스.

따라서 시즌 초반 이들의 결장에 대비, 크로아티아 용병 사샤와 들카 대신 데려오는 루마니아 출신 공격수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

고정운이 34세의 노장임을 감안한다면 풀게임 소화는 어렵고 백승철도 부상 회복이 의외로 더더 안심할 수 없는 처지다.

그러나 이동국이 시즌 개막 이후 국제경기 일정이 없는 관계로 출장이 가능, 초반 공격진 누수가 심하지 않을 전망이다.

포항은 노태경, 장현호가 상무에서 복귀했고 드래프트 1순위인 올림픽대표 하우영의 가세로, 수비라인이 10개구단 중 최고로 꼽혀 지난해 수비불안으로 부터 벗어난 안정된 경기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謹賀新年

새천년에도 축구팬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 부탁드립니다

“새해福 많이 받으십시오”

“포항스틸러스축구단”

임직원 일동
선수단

Tel:282-2002 / http:www.steelers.co.kr